

'90년 배합사료 산업의 동향

금년도 우리나라 배합사료 생산량은
대외적으로 축산물 수입개방이
가속화되고, 대내적으로 일부
원료수입자유화에 따른 양축농가의
직구매가 늘어나고,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양축농가의 불안심리가 만연되고
과거 수년간의 고도성장추세가
둔화되면서 근래 보기드문 저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1. 배합사료 생산동향

사료산업은 축산업과 떼려야 뗄수 없는 피와 살의 관계이다. 축산업의 발전없이 사료산업의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다. 이때문에 지난 30여년동안 우리나라의 사료산업은 축산업의 후광을 업고 실로 괄목한 만한 성장을 거듭해왔다.

동기간 우리나라 배합사료산업의 양적성장은 경제 성장과 정부의 축산진흥정책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지만 오히려 정제성장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다. 즉 1970년부터 1979년까지 10년동안 연평균 경제성장율은 8.6%였는데 반해, 배합사료 생산증가율은 28%로 3배이상 성장하였으며, 이같은 고도성장은 80년대말까지 이어져 지난 '89년에는 대망의 1,000만 톤 시대를 열게되었다.

그러나 배합사료 생산량이 1,000만톤을 넘어선 첫 해인 금년들어서 배합사료 생산증가가 둔화되면서 정체국면을 맞게되자 이제 우리나라의 배합사료산업이 한계에 이르렀느냐하는 비관적 전망과 아직도 우리나라 식생활수준을 감안한다면 축산물 수입 개방만 적절히 대처해 나갈 경우 앞으로도 성장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낙관적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그

김 치영

한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 과장

러나 어느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 최근들어 UR협상에 따른 양축농가의 불안심리와 국민소득 증가의 둔화등을 고려하면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금년도 우리나라 배합사료 생산량은 대외적으로 축산물 수입개방이 가속화되고, 대내적으로 일부 원료수입자유화에 따른 양축농가의 직구매가 늘어나고,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양축농가의 불안심리가 만연되고 과거 수년간의 고도성장추세가 둔화되면서 근래 보기드문 저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한국사료협회가 추정한 '90년 10월말까지의 배합사료생산량은 8,521천톤으로, '89년 동기의 8,582천톤에 비해 0.7%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금년도의 마이너스 성장은 확실시되고 있다.

품목별로보면 그동안 저성장추세를 보여오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경영상태를 유지해온 양계쪽에서 사료생산이 11%증가 하였고, 과거 고도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낙농, 비육우사료는 5%증가에 그치고 있고, 양돈사료는 오히려 -15%라는 보기드문 감소를 나타냈다. 이처럼 양돈사료가 크게 감소한 것은

'88년부터 지속돼온 양돈위기설로인해 모돈이 크게 감소하였고, 최근에는 환경오염과 신규 대규모양돈장의 규제등으로 인해 신규진입이 어려워진 것도 한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까지만해도 20%이상의 급신장을 보이던 기타사료도 금년에는 10%성장에 그치고 있다.

한편 10월까지 배합사료 생산량은 단체별로보면 사료협회산하 회원사공장이 6,675천톤을 생산해냄으로써 77.8%를 차지했고, 축협공장이 1,907천톤을 생산함으로써 22.2%를 차지했다. 따라서 사료협회산하 회원사공장들은 지난해에 비해 2.9%증가했으나, 축협공장은 13.3%나 크게 감소했다 결국 금년에는 배합사료생산이 감소하는 가운데 시장경쟁만 치열하게 벌어져 이같은 와중에서 축협공장의 시장이 일반사료공장에게 크게 잠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배합사료 생산실적을 놓고 볼때 '90년도 배합사료 생산량은 과거 수년간 지속되어온 고도성장이 둔화되면서 새로운 공급조정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때문에 지난 수년동안 축산업계의 고질화된 과잉공급도 어느정도 균형을 이루면서, 오히려 축산물 판매가격은 회복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표1. 축종별 배합사료 생산실적 대비

(단위 : 톤)

구 분	90. 1~10월(A)	89. 1~10월(B)	전년누계대비 A/B(%)
양 계	2,678,130	2,412,310	111.0
양 돈	2,887,378	3,364,811	85.8
낙 농	1,472,316	1,401,055	105.1
비 육	1,365,575	1,296,871	105.3
기 타	118,356	107,221	110.4
계	8,521,755	8,582,268	99.3

표2. 단체별 배합사료 생산실적 대비

(단위 : 톤)

구 분	90. 1~10월(A)	89. 1~10월(B)	전년누계대비 A/B(%)
사 협	6,868,967 (80.6)	6,675,205 (77.8)	102.9
축 협	1,652,788 (19.4)	1,907,063 (22.2)	86.7
계	8,521,755 (100.0)	8,582,268 (100.0)	99.3

2 배합사료 가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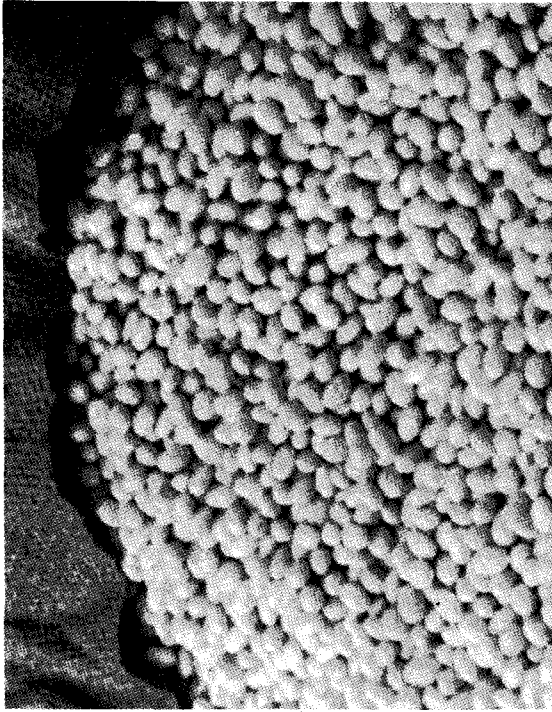
현재 우리나라의 배합사료 판매가격은 시장의 자율경쟁에 맡기고 있기때문에 원료가격의 등락에 의해 각회사별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이때문에 국제 사료원료가격의 상승은 곧바로 국내 배합사료 가격인상과 직결된다. 즉 지난 88년 미국의 대한발로 인해 국제 옥수수가격과 사료곡물가격이 폭등하면서 그해 6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배합사료가격이 8% 내외 인상된 바 있다. 그후 국제 사료곡물가격이 안정되면서 다시 할인판매체제로 들어가는듯 싶었으나, 최근에는 지난해부터 지속되어온 환차손과 금년상반기(특히 4~5월) 사료곡물 가격급등시 구매한 원료사용으로인해 다시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다.

이미 일본은 금년 4~5월의 국제사료곡물가격급등과 관련하여 6월에 7~8%의 사료가격을 인상시켰다가 최근에와서는 다시 사료가격인하를 단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기업들은 판매시장에서의 과열경쟁으로 인해 내리는 것도, 올리는 것도 어렵다보니 시기만 놓치는 결과를 빚게되었다. 결국 지금에와서 일부 대기업을 필두로 2~3%의 소폭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의 사료원료가격 추이를 놓고 볼때 전체 업계로 파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며, 인상한 업체들도 연말이나 내년초에 가서는 인하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금년도 일부 사료업체의 2~3%가격인상이 양축가들이 우려하는 만큼 심각한 국면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단지 근래에 들어서 양축가단체나 정부에서 배합사료가격인상과 관련하여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좋으나 전반적으로 원료가격의 추이나 산업의 특성에 대해서도 보다 깊은 이해가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료가격은 대개 원료구매이후 3~4개월후에 원가에 반영되며, 원가계산은 대개의 기업들이 분기별, 또는 월별 책정하는 경우가 많아 국제곡물가격 추세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게되며, 최근에 들어서는 사료원가중 인건비와 물적유통비용(物的流通費用)의 상승이 심각한 실정이다. 현재 상하차를 시키는 노무자의 노임이 35,000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인력확보가 쉽지않고 과거 1시간이면 운송할 수 있는 거리가 2~3시간씩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같은 요인들도 최근의 배합사료가격인상요인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무튼 금년도 배합사료가격은 이미 일부기업이 2~3%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료곡물가격안정으로 인해 비교적 낙관적이나, 단 최근의 페르시아만 사태와 관련한 유가인상이 사료업계를 다소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수출국들의 사료원료 생산비 인상은 차치하고라도 대부분의 사료용 원료를 해상수송으로 수입하는 관계로 선임상승에 따른 곡가상승이 우려



된다.

이미 페르시아만사태이후 유가인상으로 해상운임이 상승하고 있는데 반하여 국제곡물가격은 다행히 공급과잉으로인해 약세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미산 옥수수가격은 지난 5월 평균 144불을 기록한 이래 점차 약세를 보여 최근에는 120불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사료용소맥은 90불대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사료기업들은 배합사료가격을 안정시켜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낮은 가격에서 보다 과감한 구매를 통해 충분히 값싼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인하요인을 현재의 인상요인과 상쇄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양축농가들도 우리나라 배합사료 판매가격이 자율화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가격과 품질을 고려한 선택구매가 요구되며, 공동(협동)구매를 통한 적정구매 물량을 확보하여 가격고집력을 강화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지금과 같이 배합사료 생산물량이 줄

표3. 낙농, 육우용 사료가격 동향

(단위 : 원/kg)

구 분	1987년	1988년	1989년	1990년 10월 현재
어 린 송 아 지	210.31	215.09	230.91	242.66
중 송 아 지	173.31	175.56	190.26	202.85
큰 송 아 지	147.42	151.10	164.81	174.54
임 신 우	152.02	152.40	168.41	175.10
착 유 1	150.41	159.90	176.95	184.23
착 유 2	149.82	152.25	164.78	172.78
착 유 3	157.22	160.01	174.26	182.09
종 모 우	135.93	138.19	149.26	157.18
큰 소 비 육 I	145.67	147.94	160.33	168.78
큰 소 비 육 II	135.06	136.77	147.65	151.08
육 성 비 육	155.53	157.82	170.90	179.29

자료 : 축협조사 계보

※ '90년 10월현재 가격은 임의 추출한 20개 사료공장의 평균판매가격임.

이제는 우리나라 축산물에 대한 수입개방이 불가피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양축농민에게 보다 밝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과 사료용대맥등과 같은 원료 수입규제품목을 해제시켜 배합사료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할 것.

고,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태에서 배합사료공장이 가장 어려운 것은 거래선의 확보이므로 양축가들이 이 점을 감안하여 가격교섭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사료의 현찰구매조건부터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3. 배합사료 정책동향

앞으로 한국의 축산업과 사료산업은 성장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우리의 주식(主食)을 대체할 축산물공급을 외국에 맡기느냐, 아니면 우리손으로 공급해내느냐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그동안 정부는 전통적인 주식량인 쌀, 보리, 콩등과 같은 식량의 증산을 위해서는 매년 양곡수매가격을 인상시켜왔고, 영농비경감을 위해 영농자금금리를 14%에서 5%까지 인하시켜왔다. 지난 88년에는 비료, 농약, 농기계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통해 세제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결과 쌀의 경우는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세계제1위라는 성과와 함께 과잉재고라는 부담까지 안게되었다.

그러나 지난 수년동안 축산업계와 사료업체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은 금년에도 관철되지 못한채, 농발기금으로 전입 운운하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킴에 따라 양축농가의 반발만 더욱 거세졌다.

이처럼 식생활구조변화와 함께 정부의 농업구조개편을 통한 정부의 지원방향도 달라져야함에도 불구하고

하고 그동안 농업부분에대한 지원은 주로 경종농업에만 치중해왔다. 성장산업인 축산업에대한 증산의욕고취정책은 너무도 미흡한 실정이었다. 예컨대 일부가축번식 및 유통사업과 초지조성장려를 위한 자금지원이 있었을 뿐 경종농업처럼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금융 및 세제지원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90년도에 들어와서 정부가 축산 및 사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취한 세제개선 조치는 수수의 5%관세를 3%의 할당관세로 인하한 것 뿐이며, 아직도 모든 품목의 관세가 3~1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성장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정책부재와 돼지고기 통조림및 쇠고기등의 수입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세제정책 및 원료수입규제정책을 고수해오에 따라 오히려 축산선진국의 수입시장으로 전락해가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나라 축산물에 대한 수입개방이 불가피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양축농민에게 보다 밝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과 사료용대맥등과 같은 원료 수입규제품목을 해제시켜 배합사료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할것이다.

또한 정부의 정책지원 여하에 따라 수출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는 축종에 대해서는 방어적인 태도에서 공격적인 자세로 전환하여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전략산업으로 육성시켜나가야 할 것이다.